

“환경오염 사전예방 행정 강화할 터”

환경행정당국 · 기업 · 국민 모두 친환경 의식으로 전환해야 ...

사회 · 문화 ·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임과 동시에 각종 오염원이 밀집된 지역, 전 국토의 15%에 불과하지만 전 인구의 46%가 거주하는 경인지역의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관리청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최근 영산강 · 원주지방환경관리청 및 환경부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환경행정 전문가 서동헌씨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부임했다. 오염원이 밀집된 지역이고 수많은 환경문제가 산재해 있는 지역인 만큼 새로운 청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에 본지는 연합회 이성호 회장, 인천협의회 김갑석 회장, (주)진로발효 환경팀 정태환 차장과 함께 서동헌 청장을 만나 환경오염예방 대책 및 관리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수도권지역 환경을 관장하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청장으로써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권지역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써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환경문제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며,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경제개발이라는 목표아래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점도 사실입니다.

21세기에는 “환경의 세기”라고 부를 만큼 환경문제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환경대국에 의해 희생되는 환경소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국가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수도권 환경행정을 맡게된 본인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각종 업무를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나가되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행정을 강화하고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관장하는 수도권지역은 비록 전국토 면적의 15%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 인구의 46%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효율적인 지역환경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화 · 인천지역 대기질 장 · 단기 대책 추진,

둘째, 수도권지역 수질 및 폐기물관리 등 환경관리체계 강화,

셋째, 맑은바 업무를 철저히 분석하여 전문성을 갖춘 환경공무원상 정립,

넷째 21세기에 대비하여 환경행정의 선진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민원인에게 친절한 환경공무원상을 구축해 나감으로서 수도권지역이 보다 환경친화적이며, 2천만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 환경정책은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이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



〈오른쪽부터 이성호 본연합회회장, 서동현 청장, 정태환 차장〉

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오염사전예방을 위한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협의제도,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폐기물처리인증제도, 환경마크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제도의 실천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환경행정당국과 기업간의 불신과 대립적 관계를 청산하고,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하도록 지속적인 규제완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이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친화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설치신고로 완화하여 허가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친화기업 지정기간동안 지도·단속을 면제하여 그들이 정부의 단속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세제, 금융 등의 우선 지원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스스로 사전예방 이행의무를 등한시하거나 위반했을 경우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를 가하여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확실하고 성실한 의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과 대안의 개발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환경오염사전예방의 궁극적인 고취방안은 언론을 통한 홍보·계도와 현장에서 환경관리를 몸소 수행하는 환경관리인 및 국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 시화지구 악취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경인지방청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악취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청에서는 『대기질(악취)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악취사전예방대책을 추진한 결과 악취발생빈도 및 강도에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으나 잘아시다시피 시화지구는 지형특성상 주풍향이 주거지역으로 향하고 해무 등 저기압 발생빈도가 높아 대기확산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악취배출업소가 다수 입주되어 있어 악취가 발생될 소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청에서는 악취사전예방대책과 함께 『시화지구 대기질(악취) 개선』을 위한 장·단기대책을 마련하

여 추진 중에 있는바, 단기적으로는 악취매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기술진단을 통하여 노후시설교체 및 방지시설 보강, 차단녹지대 조속 추진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관기관별 추진중인 악취대책을 통합하여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악취감시센터를 운영하여 24시간 상시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예고제의 일환으로 기상악화예상시나, 악취감지시에는 해당업소 관계자와 순찰중인 우리청 악취대책반원에게 상황을 전파하여 폐기물 소각량을 조정하고, 소각온도를 1100℃이상 유지하도록 하거나 소각로 가동자체를 중지토록 하여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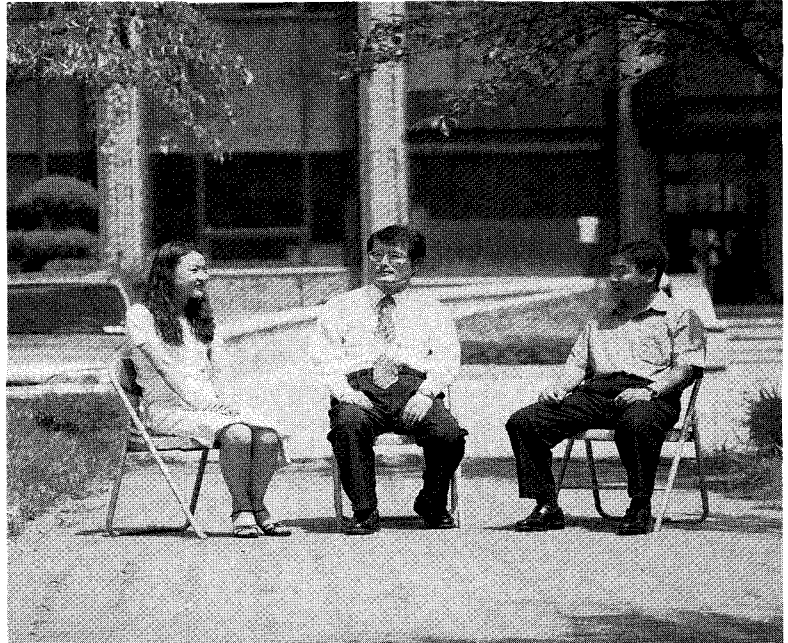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이 대기환경규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주요 악취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화산업단지 신규입주업소 심사를 강화하여 저공해 업종을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경기도의 『대기보전실천계획』 연구용역 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지구 대기오염저감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추진중인 대기질 개선대책을 보완·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청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시화지구의 악취발생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시화호의 수질개선 대책 및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94.1월 시화방조제 끝막이 공사 후 급격한 수질악화('96.4월 COD 19.5mg/l)로 '96.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97.3월에는 1차 처리만 하던 안산하수처리장(용량 121



천톤/일)에 대해 2차 처리가 가능한 생활하수 처리장(179천톤/일)을 우선 준공하여 가동하였으며 그후 '99.10월에는 공장폐수처리장(206천톤/일)을 마저 완공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단 우수 도구에 차집관거(약 100천m³/일)를 '97.3월부터 설치하여 공단내의 오점 및 불법방류로 인한 오·폐수를 시화 하수처리장으로 전량유입 처리하고 있으며, 안산천·화정천 합류부 및 시화공단 제2,3간선수로에는 부레옥잠과 산기관을 통한 오·폐수의 자연정화를 위하여 산화지를 '99.5월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인 대책으로써 시화호 수질개선의 일환인 배수갑문 조작관리 방안이 '99.1월 환경시범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되어 '99.3월부터 해수유통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00.5월까지 COD 4.2mg/l 으로 예전 수질(COD: '97 : 17.4mg/l, '98 : 7.9mg/l, '99 : 5.2mg/l)보다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향후 2단계 추진대책으로 안산하수처리장이 2002년에 149천톤/일을, 시화하수처리장이 2001년 2월 103천톤/일 증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에도

직접 유입되는 저농도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자연 정화시설인 인공습지(247천평)가 '97.9월 착공 후 2001.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화호 유역 주요오염원인 공단(반월·시화)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공기가 나쁘다고 그간 민간환경단체들과 언론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시민들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경인지방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청에서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14개 도시에 대기질 측정망 30개소, 자동차배출가스 측정망 3개소, 장거리이동오염물질 측정망 1개소 등 총 34개소를 설치하여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 등 5개 항목을 24시간 연속 자동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자료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의 대표물질인 아황산가스의 경우 '93년 이후부터 평균치가 환경기준 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이나, 최근 환경오염물질로 중요시되고 있는 오존의 경우 '95년부터 오염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단기환경기준 초과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존 오염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에 따라 오존생성의 주원인물질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이상고온현상 및 대기정체등 기상조건의 악화로 인한 것이며, 또한, 고정 배출원인 반월·시화공단 등 수도권지역에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집중화된 데 기인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오염도를 원격자동감시시스템(TMS)을 통하여 24시간 연속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매주, 매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지도단속 등 업무에 반영,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초과시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하여, 해당지역별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자제토록 권고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

다.

또한 근본적인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LNG 등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상지역 및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B-C유 및 경유의 황 함유기준을 강화하는 등 저황연료유 및 청정연료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유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배출오염물질의 저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수도권지역 주민 및 환경관리인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생명과 건강,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91. 3월에 발생했던 대구 폐쇄 유출사건, '94. 1월 낙동강 벤젠, 톨루엔사건으로 인한 수도물과동은 환경문제가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임과 동시에 각종 오염원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21세기 세계 으뜸가는 녹색환경의 나라건설을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로 의식을 전환하여야 하겠습니까.

각 기업의 환경관리인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환경 보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환경관리인의 법적 권한을 향상시켜 일선에서 마음놓고 사내 환경관리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울러 환경관리인은 환경관련법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생활 주변의 작은 일에서부터 환경친화적인 즉 음식물 안남기기,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실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